◉ 종돈개량에 앞장서고 있는 제 1 종돈능력검정소 직원들 (앞줄 우로부터 홍성혁 과장, 박규선 주임, 홍성광 대리, 정숙근 소장, 박성환 기사, 한항수 주임, 이명수 기사, 지경자씨, 이명석 주임)

현지취재

종돈개량의 산실 제 1 종돈능력 검정소

—이 병 석—

국내 양돈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최근에는 양돈농가의 수는 줄어들면서 호당 돼지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기업양돈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각 농장에서의 우수한 종돈에 대한 요구와 가축개량화에 대한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돈개량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지난 84년 정부공인 (사)대한양돈협회 제 1 종돈능력검정소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이는 순종돈의 경제 형질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외모심사에 의거 유전적 자질이 우수한 후보종돈을 정확하게 선발하여 보급 활용케함으로써 돼지의 개량 및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3만평 규모에 검정사, 예비사, 방목장, 교육관, 부대시설 등 총 5천평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정부공인 제 1 종돈능력검정소는 지난 82년 가축개량발전계획에 의거 정부로 부터 종돈 능력 검정소 설립승인을 얻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양돈협회 회장단 및 농수산부 축산과장 등이 직접 유럽 각국의 검정소를 시찰하고 83년에는 검정소 부지매입, 검정사업, 검정기관 승인과 함께 검정돈사와 부대시설물을 완공 하였다.

이어 84년도에 미국 IOWA 주립대학 Max Rothchild 박사를 초빙하여 검정사업 자문을 받아 그 해 7월 5일 최초로 제1차 검정돈 32두를 경매, 현재는 매달 평균 130두 정도의 검정돈을 경매하고 있다.

또한 검정소는 정숙근 소장을 비롯하여 관리업무전반 담당 홍성혁과장 등 총 9명의 직원이 전문적인 관리를 해줌으로 완벽한 검정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고의 종돈 검정능력사업 완벽추구

종돈능력 검정절차는 종돈장에서 두당 소정의 출품 수수료를 지불하고 출품하게 되는데 (전국 120여개 종돈장중 40~50개 종돈장이 출품) 검정돈은 랜드레이스, 대요크샤, 듀록, 햄프샤, 기타 장려 품종등으로 혈통등록 이상의 등록된 돼지 사이에서 생산된 자돈으로 산자수와 육성수가 우수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 없으며, 한배 새끼에서 선발된 자돈으로 돈콜레라, 돈단독의 전염병 발생이 없는 양돈장에서 사육, 돈콜레라, 돈단독 예방 접종을 하고 생체중이 25± 3kg인 육성자돈 수퇘지(또는 암퇘지)를 복당 2두씩 입식한다.

◉ 등지방, 정육률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입식돈은 초기에는 제한 급사하고 점진적으로 무제한 급사에 의거 검정사료로 순치하면서 예비돈사에서 생체중 30kg까지 사육한 후 2두의 평균 생체중이 30kg에 달한 것을 검정돈사에서 2두를 같이 넣어 검정종료시까지 같은 돈방에서 사육한다.

검정돈은 규정된 검정사료를 자동급사기에 넣어 무제한 급사하고 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며, 강제 환풍으로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해주어 실내 온도는 15~20℃유지를 원칙으로 하여 사양관리를 하는데 2주간 증체가 없는 것과 170일령에 90kg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검정을 중지한다. 검정돈 2두가 각각 90kg에 이르게 되면 검정을 마치고 방목장으로 이동하여 사육한다. 이렇게 해서 검정을 마친 검정돈에 대한 조사항목은 일당증체량, 등지방층, 사료요구량, 체위측정 등을 각 항목기준에 의거 선발지수식을 이용하여 판정결정을 한다.

검정 합격돈은 종돈 능력 검정 증명서가 발급되며, 그 성적은 축산관계 정기 간행물 및 유인물에 발표한다. 그리고 검정불합격돈과 검정중지돈은 일괄 도축하여 출품농장에 그 대금을 정산하므로 돼지 한 마리에 대한 능력검정이 마쳐지게 된다.

일반 양돈농가에서 검정돈을 구입하는 경우에

◉ 등심 단면적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는 특별한 자격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구입할 수가 있다.

종돈개량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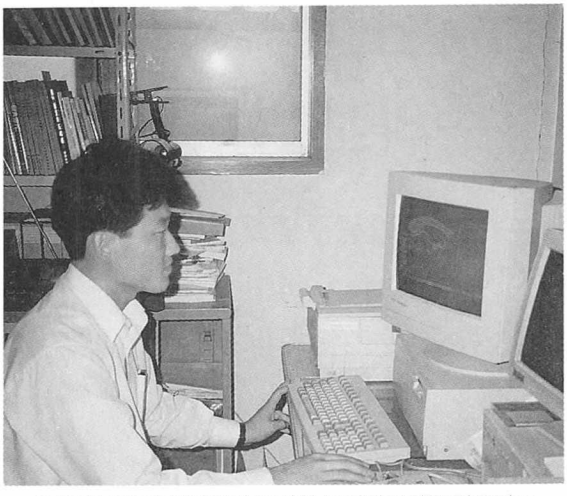
93년 이후 향후 10년간 랜드레이스, 요크샤, 듀록, 햄프샤, 기타 품종에 대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일당증체량(g)은 '93년 기준 910에서 1,200으로, 등지방 두께 1.78cm에서 1.5cm로 사료요구량(kg)은 2.37에서 1.80으로, 정육률(%)은 50에서 65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 85년부터 95년까지 품종별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당증체량이 865g에서 904g으로, 등지방층이 1.89cm에서 1.37cm로, 사료요구량 2.84kg에서 2.39kg, 90kg도달일령 147일에서 143일, 선발지수 166점에서 216점으로 지난 10년 동안 종돈개량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한편 검정소에 출품된 검정돈은 84년에 511두 출품에 246두가 검정종료 되었고 이 중 169두가 경매되었으며, 향후 10여년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95년에는 2,632두가 출품되어 2,552두가 검정종료 되었고, 경매는 1,545두를 하는 등의 국내 종돈능력의 개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84년부터 95년까지 제 1 종돈능력검정소에 출품된 검정돈은 총 17,478두이며 그 중 16,509두가 검정 종료되었고, 9,800두가 경매되어져 일반 양돈농가에게 보급되어졌다.

또한 검정소 검정뿐만 아니라 종돈장에 직원이 직접파견되어 농장검정도 실시하여 검정합격돈



◉ 홍성혁 과장이 현장에서 측정한 등심단면적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

◉ 경매가 이루어지는 모습, 경매는 매달 20일에 실시한다.

은 검정성적 증명서를 검정소에서와 똑같이 발급해 주어 검정 종료된 종돈장에서도 일반 양돈가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검정돈 선발은 매달 5일경에 서울대학교의 박영일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돈능력검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여기서 선발된 검정돈만 매달 20일에 열리는 검정돈 경매에 출품되게 되는 것이다.

SEW통한 종돈의 위생상태 최고로 유지코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양기술은 SEW(격리조기이유)방법으로서 질병에 대한 감염요인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 피해를 월등히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SEW를 이용하는 농장의 경우(극히 드물지만) 자돈을 조기격리하므로 모돈에 대한 질병의 수직감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검정소에서도 질병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난 95년 말부터 SEW농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검정소 홍성광 과장을 미국으로 SEW양돈연수를 보내어 실무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6년 현재(10월)에는 충북 음성에 3,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800~900두 정도의 자돈(4kg~25kg)을 수용할 수 있는 검정돈사를 신축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이는 각 농장에서 출품되는 검정돈의 위생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SEW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욱 위생적인 종돈을 일반 양돈농가에게 보급하겠다는 목표이다.

제 1 종돈능력검정소는 지난 84년부터 설립되어 검정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검정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검정돈을 배출하였으며, 국내 종돈의 성적을 우수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향후에도 계속적인 종돈능력검정을 통해 국내 종돈개량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